

>> 1면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서 계속

정부재정→민간투자→고용 연결돼야

이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쓰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청년실업률은 낮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했다면 취업자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들어온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도 증가해 취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실업자로 분류돼 결과적으로 실업률만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한 것이 실업률 상승에 한몫 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운 교수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구직을 꺼리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져서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고용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핵심은 투자가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 재정이 민간 투자로 연결되고 민간 투자는 고용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책의 불확실성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

"9일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열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에 제의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대표단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정부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한줄 News

정치·사회

▲ **여야가 새해에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산업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한 해 앞두고 현장 중심 경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4년여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마켓·부동산

▲ **올해는 KB금융이라는 지주사가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8년을 아시아 리딩뱅크로 나아갈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기관장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무술년 새해 키워드로 '도전과 혁신'을 꼽았다.**

라이프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마무리

M&A귀재 권성문, 이병철에 백기 든다

(KTB투자증권 회장)

(KTB투자증권 부회장)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권성문 회장 지분 18% 매각
이병철,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의결권 지분 32.76% 확보로
KTB투자증권 최대주주 올라서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은 권 회장이 매각한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경영권 분쟁이 종착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권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매수 가격은 5000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662억2478만원에 달한다. 매매계약이 종결되면 이 부회장은 총 2075만7226주(38.32%)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권 회장의 지분율은 24.28%에서 5.52%로 감소하고, 이 부회장의 지분은 14.00%에서 32.76%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그간 치열하게 벌여온 경영권 분쟁에서 이 부회장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문이 만든 KTB

권 회장은 인수합병(M&A)의 귀재로 불린다.

지난 1991년 한국M&A를 창업한 후 수십 건의 M&A를 성사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인터넷 경매 업체 '옥션'과 취업포털 '잡코리아'를 매각해 10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또 1996년에는 섬유회사인 영우통상 주식을 인수해 전자상거래 전문 업체로 사업구조를 바꾼 뒤 한솔그룹에 매각해 6개월 만에 9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사업가로서 능력도 증명했다.

현재의 KTB는 1999년 1월, 공기업이었던 한국종합기술금융(현 KTB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권 회장은 이후 이를 벤처캐피털 업체 KTB네트워크(현 KTB투자증권)로 키워내며 지금의 KTB금융그룹을 완성했다. 현재 그는 KTB자산운용, KTB PE, KTB신용정보 등 계열사 지분을 100% 보유한 KTB투자증권 지분 26.72% 소유한 최대 주주다.

◆**흔들린 리더십**
하지만 견고하게 쌓아올린 리더십은 권 회장의 잇단 논란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권 회장이 개인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돈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이어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

업계에서는 회장실과 자택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권 회장의 특가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상 부

정거래 혐의관련 검찰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권 회장이 혼란을 겪을 동안 2대 주주인 이 부회장은 지분을 늘려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KTB투자증권 지분 5.8%를 확보해 주주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이 부회장은 KTB투자증권 지분을 16.39% 보유한 2대주주가 됐다. 권 회장과 지분(당시 21.96%) 격차를 불과 5.57%포인트(p)로 좁힌 것.

이에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권 회장 측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며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권 회장은 12월 한 달 동안에만 10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287만주)으로 지분율을 26.72%까지 끌어올렸다.

◆경영권 분쟁 종지부

하지만 권 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이 부회장에 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제3자 매각 의사와 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여부에 대한 청약 통지를 했고,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두 사람의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롯데지주, 6개 비상장 계열사 투자부문 흡수 합병

순환출자 완전해소, 투명성 제고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 합병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다.

롯데지주,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흥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는 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롯데상사 등 6개 비상장사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이번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사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2017년 10월 12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 2년만에 약속 실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순환출자 해소를 처음 공표한 이



롯데지주(주)

후 지속적으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롯데는 기존 순환출자리를 대폭 줄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과 투자부문간의 리스크를 분리시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번 추가 분할합병을 통해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와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투자기능을 롯데지주로 통합함으로써 투자역량 강화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비상장 6개사의 경우 투자기능

과 사업기능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롯데지주 6개 비상장사 투자부문 흡수합병

롯데아이티테크를 제외한 5개 비상장사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를 분할한 후 투자회사를 롯데지주와 합병한다. 롯데아이티테크의 경우 작년 11월 1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롯데정보통신을 설립했기 때문에 투자부문만 따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분할 없이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된다.

합병비용 산정은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사업부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롯데지주는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롯데아이티테크 및 비상장

5개사 투자부문은 본질가치로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은 외부평가기관이 주관했다.

◆경영투명성 제고...주주중심 경영 문화 강화

롯데는 2014년 6월까지 75만개에 달하던 순환출자로 인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노력과 지주회사 출범, 이번 추가 흡수합병을 통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완전히 해소된다.

순환출자 완전 해소를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경영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복잡한 순환출자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어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CJ CGV, 中진출 11년 만에 100호점 돌파

상하이 베이와이탄 개관
4DX 등 8개관 1330석 보유

CJ CGV가 중국 100호점 시대를 열었다.

CJ CGV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상하이 바이와이탄 광장에 중국 100호점 'CGV상하이 베이와이탄'을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 상하이는 CJ CGV가 2006년 글로벌 1호점 CGV상하이 파닝을 연 곳이다. 중국 진출 11년만에 드디어 100개의

극장을 보유하며 또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CGV상하이 베이와이탄은 CGV가 상하이에 여섯 번째로 오픈한 극장으로 4DX, IMAX, 골드클래스 포함 8개관 1330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선보여왔던 '컬처플레이스'를 콘셉트로 다양한 특별관과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프리미엄 극장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상관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CGV상하이 베이

와이탄이 위치한 바이와이탄 광장은 상하이시 정부가 계획한 핵심상권 중 하나이며 향후 상하이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여객부두, 12호선 지하철역과 연결돼 접근성도 뛰어나다. 인근에는 5성급 W호텔이 있으며 고급 주택과 오피스 빌딩 등이 지속 개발될 예정이다. CGV가 지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번 극장 오픈으로 CJ CGV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48



CJ CGV 중국법인장 장경순 상무가 중국 100호점 CGV상하이 베이와이탄 오픈식에서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CJ CGV

개 도시에 총 100개 극장, 793개 스크린을 갖추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